

# 추석선물, 과일 대신 한우 급부상

## 나주배·완도 전복 양식장 태풍 피해 과일·수산물 세트 가격 10~20% ↑

태풍 여파로 올 추석 선물은 과일 대신 굴비나 한우세트가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태풍 블라벤이 호남, 남해안, 제주 지역을 강타하면서 추석 선물용 과일과 수산물 수급에 차질이 불가피해 해 가격이 10~20% 가량 오를 전망이다.

당초 사과, 배 등 과일 선물세트는 추석이 지난해 보다 늦게 찾아온데다 풍작으로 가격이 최대 20% 가량 하락할 것으로 유통업계가 전망하면서 올 추석 인기 선물 세트도 급부상했다.

하지만 태풍으로 인한 낙과피해가

커 추석 대목을 앞두고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배는 주산지인 나주지역 낙과 피해율이 60%에 달해 수급에 비상이 걸리면서 업계는 기존 시세보다 10~20% 정도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지역 유통업체들은 과일 등을 추석 청과세트 가격 책정을 놓고 손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고심 중에 있다.

이마트의 경우 배 선물세트 가격을 '3만4000~4만8000원'으로 범위를 설정, 가격 조정의 여지를 남겨두기도 했다.

지역 유통업체 식품 담당자는 "올 추석선물을 청과 물량은 간신히 확보했지만 다음 설 명절용 과일 물량 확보가 더 큰 문제"라며 "올 추석에도 과일 세트 가격 인상은 불가피하겠지만 설 명절 때는 더 많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수산물세트도 가격이 10~20% 가량 올랐다.

국산 전복의 80% 이상 출하되는 완도지역 양식장이 강풍으로 초토화되면서 전복가격은 10% 가량 올랐다.

8월 들어 수온 상승과 해파리 출현, 녹조현상 등으로 제수용 생선과 고급 멸치 등도 어획량이 많지 않아 가격이 소폭 오르고 갈치도 어획량이 줄면서 지난해보다 가격이 10~20% 가량 올랐다.

반면 지난해 어획량 감소로 10%가량 올랐던 굴비는 15% 가량 가격이

떨어졌다. 비축물량이 많은데다 유통업체들이 재고 물량을 없애기 위해 가격을 낮췄기 때문이다.

한우선물세트도 지난해보다 가격이 10% 가량 떨어졌다. 한우는 현재 사육두수가 311만 마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소비부진으로 최근 한우의 소비자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가공식품 가격은 5% 가량 올랐다. 미국 대가품으로 옥수수·콩 등 국제 곡물 가격이 치솟은데다 참치와 알루미늄·기름값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다.

원재료값 인상으로 국내 햄과 참치 통조림 가격도 지난해보다 5% 가량 올랐다.

추석상품 주력 가격대도 작년 1만~3만원에서 올해 2만~4만원으로 올라갈 전망이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 휘발유값 다시 2000원대

### 광주 2004.66원·전남 2005.99원...46일만에

광주·전남지역 휘발유 값이 또 다시 2000원을 돌파했다.

2일 유가정보사이트 오픈넷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의 보통 휘발유 값은 광주가 2004.66원, 전남은 2005.99원을 기록했다.

광주·전남의 보통휘발유 값은 지난달 30일 평균 2000원을 넘어섰다. 광주는 지난 5월20일(2000.45원) 이후 46일 만에, 전남은 5월28일(2001.06원) 이후 44일 만에 다시 2000원대 올라선 것이다.

광주의 경우 지난 4월18일 보통휘발유 값이 2049.72원으로 올 들어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7월 15일 1862.40원까지 하락했다가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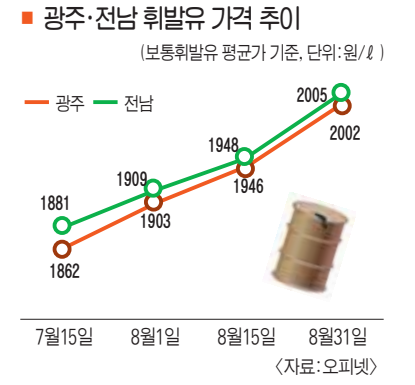
원대로 재진입했다.

전남은 4월 22일 2000원대 보통휘발유 값이 2049.86원으로 최고가를 보이다가 7월 17일 1880.36원으로 최저점을 찍고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7월 한때 1600원대까지 떨어졌던 광주지역 자동차용 경유도 지난달 29일 1801.83원으로 1800원대에 진입한 뒤 1806.08원을 기록하고 있다.

전남도 자동차용 경유 평균 가격이 7월 17일(1704.66원) 이후 꾸준히 상승하면서 1808.36원에 팔리고 있다.

전국 평균 휘발유 값은 2023원으로 지난 5월 20일 이후 석달 보름 만에 2000원대로 올라섰다.



이번 주 광주·전남 휘발유 값은 다소 오름세가 주춤하면서 2000원대를 유지할 것으로 오픈넷은 내다봤다.

9월 첫째주 휘발유 예측가격은 광주가 전주보다 다소 오른 2012원, 전남은 2011원대로 전망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 농수축산물 특별단속 관세청 내달 3일까지

관세청은 추석을 앞두고 3일부터 한 달간 농수축산물 불법반입과 유통 사범에 대해 특별단속을 한다고 2일 밝혔다.

중점 단속 품목은 고추, 마늘, 생강, 조기, 명태, 쇠고기, 돼지고기 등 농수축산물 25개이다.

관세청은 보청과 직할 세관에 단속 본부를 설치하고 전국의 42개 단속반, 561명을 동원해 수입화물 전체를 대상으로 우범경로와 우범화물에 대한 정보 분석을 강화할 계획이다.

유해 먹거리 적발 시에는 유통 중인 불법 수입물품을 긴급회수해 폐기조치할 수 있도록 식약청 등 관계 기관과의 협조체제도 구축했다.

단속대상은 ▲검역에 불합격한 물품을 불법으로 반입한 행위 ▲저가신고를 통해 시장질서를 교란하거나 폭리를 취하는 행위 ▲질이 낮은 수입 물품을 국산 지역특산품으로 위장하는 행위 등이다. 또 수입신고 완료 전에 보세창고에서 수입물품을 무단 반출하거나 보파리상을 통해 불법반입 농산물을 수집·판매하는 행위를 색출한다.

농수축산물 불법반입과 유통사범 신고는 국번 없이 125(이리로)로 하면 된다.

/연합뉴스



2일 (주)광주신세계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전남지역 과일농가를 돕기 위해 마련한 '낙과 직송전'에서 소비자들이 사과를 고르고 있다.

## 낙과 사주기 '문전성시'

### 광주신세계 3일째 매진행렬

태풍으로 낙과 피해를 입은 과일 농가 돕기 위해 (주)광주신세계 진행 중인 '낙과 과일 직송전'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광주신세계가 낙과 피해 농가를 돕기 위해 지난달 31일부터 진행 중인

'낙과 과일 직송전'이 3일째 매진 행렬을 이어가고 있다.

2일에는 광주신세계 장성농가에서 가져온 사과가 영입 시작 한 시간 만에 품이 나는 등 행사를 위해 준비한 사과 4500개를 모두 다 팔았다.

광주신세계가 낙과피해 과일을 절반 가량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자 비싼 가격 탓에 과일 사기를 미웠던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구매에 나섰다.

광주신세계 관계자는 "낙과 과일에 경미한 흠이 있긴 하지만 맛과 품질면에서 기존 상품과 다른 점이 전혀 없으며 수확 적기에 떨어진 과일이라 당도가 매우 높은데다 가격도 저렴해 소비자들에게 반응이 좋았다"고 설명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 '자금난' 조선업계에 4조원 추가 지원

조선업계의 자금난을 덜어주고자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 등 7개 기관이 4조원 규모의 제작금융을 추가로 공급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일부터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들이 조선사에 제작금융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제작금융이란 만드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선박이나 해양플랜트 등의

대금을 받을 때까지 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수출입은행이 제작금융을 도맡아 올해 3조5000억원으로 지원 규모를 늘렸지만, 조선업계의 불황이 깊어져 추가 지원이 필요해졌다.

선박대금을 5단계에 걸쳐 20%씩 균등하게 나눠 주던 지급 방식이 선박 인도받을 때 60%를 몰아 주는

방식으로 바뀐 것도 제작금융 지원을 확대한 배경이다.

이번 제작금융 지원에 참여한 곳은 정책금융공사·산업은행 등 2개 정책금융기관과 국민·우리·신한·하나·외환 등 5개 시중은행이다.

대출기한은 선박 인도후 30일 이후까지다. 선박은 평균 1년 반, 해양플랜트는 1~3년가량 걸린다.

/연합뉴스

### 주간 증시 포커스

## 소형주·코스닥 강세...화장품·게임주 공략

7월 하순 드라기 총재 발언과 미국의 추가 양적완화 정책에 따른 글로벌 유동성 확대 기대감으로 안도밸리를 보였던 주식시장은 당분간 방향성 탐색과정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외국인들의 공격적 매수세가 비단 국내 증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인도와 대만 등 이머징 마켓에서도 나타난 현상임을 감안하면 지난 주 매도전환에도 아직 외국인의 투자심리 위축을 경계할 시기는 아니라는 판단이다.

이런 주 역시 중·소형주와 코스닥 시장의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단기 상승에 따른 부담감이 상존하는 만큼 업종 및 종목별 수급과 개별 모멘텀에 초점을 맞춰 종목을 선별해야 한다. 빠른 성장성을 통해 밸류

에이션 부담을 덜어내고 있는 화장품, 모바일 결제 및 게임 등 경기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내수업종인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등을 대상으로 한 트레이딩 전략이 그것이다.

반면, 업종 내 대표주를 중심으로 한 경우 및 비철금속 업종과 자동차·IT 업종은 주 중반 불확실성 해소 이후 저가 매수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박종모**  
〈신한금융투자 광주지점장〉

# PAR3 골프장, 연습장 매매

**입지** | 화순 전남대 병원 3분거리

**규모** | 전체부지면적 146,411㎡ / 사업승인면적 130,718㎡  
PAR3골프장 / 실외연습장 40타석 비거리 170yd

**편의시설** | 클럽하우스 1,552.80㎡ (라카룸, 샤워실, 레스토랑)  
실외연습장 1,654.92㎡ (락카룸, 강의실, 골프샵)  
주차공간 : 160대 주차

**특이사항** | 감평가 82억원 / 매매가 65억  
現회원 1,000명  
PAR3골프장 / 실외연습장

**문의처** 010-9349-5555 · 062-446-5000

**화순PGA (전대병원 뒷편)**